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b>출 장 자</b>	<b>소 속</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성 명 및 직 위</b>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국제협력센터 연구원
<b>출장기간</b>	2022. 5. 22. (일) - 2022. 5. 27.(금) [4박 6일]			
<b>출장지</b>	스웨덴 스톡홀름			
<b>출장목적</b>	2022 KWDI-스웨덴 ISDP 국제포럼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b>경비부담</b>	본원 부담 (약 1천 3백만원)			
<b>주최기관</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출장 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KWDI-스웨덴 ISDP 국제포럼 개최</li> <li>• 국제포럼 참석 및 유럽-아시아 개발협력 전문가와의 네트워킹</li> <li>• 스톡홀름 소재 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 방문 및 향후 협력기반 구축</li> </ul>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2022 KWDI-스웨덴 ISDP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스웨덴 출장

# 출장 복명서

2022. 6.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 1

## 출장 개요

- 기간: 2022. 5. 22(일) - 5. 27.(금) [4박 6일]
- 장소: 스웨덴 스톡홀름
- 출장자 및 역할: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국제협력센터 연구원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이택면	성주류화지식 혁신본부장	- 국제포럼 참석 및 개회사 - 스웨덴 내 성평등 관련 기관방문 및 고위급 간담회 개최
윤지소	국제협력센터 장	- 국제포럼 운영 총괄 - 국제포럼 제1세션 사회 및 발표 - 스웨덴 내 성평등 관련 기관방문 및 고위급 간담회 총괄
박윤정	국제협력센터 연구원	- 국제포럼 운영 지원 - KWDI-ISDP 업무협력 간담회 진행 - 스웨덴 내 성평등 관련 기관방문 및 고위급 간담회 진행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출장배경:

- 가.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해였으나, 코로나19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전 세계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킴.
- 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함. 또한 팬데믹은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감소,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 증가 등 전 세계의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젠더기반폭력 및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며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음.
- 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원은 MOU 체결 기관인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포스트 팬데믹 시대 개발원조를 통한 성평등 제고 전략: 유럽과 아시아의 경험(Strategi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Post-pandemic Era: Perspectives from Europe and Asia)”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기획하였음. 구체적으로, 본 포럼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 주요 공여기관과 국제

NGO의 글로벌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싱크탱크로서, 2018년 5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소 내 ‘스톡홀름 코리아센터’가 개소함.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이전부터 북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안보, 핵 등의 이슈에 대한 훈련 및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2018년 10월에는 남북한 공동 초청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본원의 전문가(장은하 연구위원)를 초청하여 1개월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원과는 2019년 7월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한 이래 국제학술회의, 온라인 포럼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출장목적:**

- 가. 국제포럼 공동 개최를 통해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협력방안 도출.
- 나. 포럼에 참석하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스톡홀름 소재 성평등 관련 기관방문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본원 국제협력 사업의 외연 확장.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5/22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출국: 이택면 본부장, 국제협력센터 연구진(총 3인)</li> <li>• 이택면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Z541 인천 10:30 → 스톡홀름 23:55, 17시간 55분 소요, 프랑크푸르트 경유)*</li> </ul> </li> <li>•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719 인천 11:15 → 스톡홀름 23:40, 19시간 25분 소요, 뮌헨 경유)</li> </ul> </li> </ul>	인천→ 스톡홀름
5/2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기관방문</li> <li>•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비영리단체 MÄN 기관방문</li> <li>- KWDI-ISDP 업무협력 간담회 및 국제포럼 환영만찬 참석</li> </ul> </li> </ul>	스톡홀름
5/24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국제포럼 개최 및 참석</li> <li>• 오후: 스웨덴 성평등청과의 업무협의회</li> </ul>	스톡홀름
5/25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스웨덴 고용·성평등부 기관방문</li> <li>• 오후: 스웨덴 외교부 기관방문</li> <li>• 연구진 회의</li> </ul>	스톡홀름
5/2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귀국 (LH2415 스톡홀름 11:50 → 인천 9:45+1일, 5/27(금) 인천 도착)</li> </ul>	스톡홀름→ 인천

## 2

## 기관 방문 및 업무협력 회의

###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기관 방문

□ 일시: 2022.5.23(월), 11:00~13: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SIDA 참가자: Lotta Sylwander (젠더정책 담당관), Lena Karlsson (여성경제 전문가)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활동 설명 (Lotta Sylwander 젠더정책 전문가)

- 스웨덴에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SIDA는 젠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음. 불과 15년 전만 해도 기관 내에 젠더 전문가 부족했지만 현재는 다수의 젠더 전문가가 존재함. SIDA 조직은 현재 분야별 부서(thematic) 및 지역별 부서(geographic)로 구분됨. 젠더는 분야별 부서로 분류되고 있으나, 젠더 전문가는 SIDA 사업의 전 과정에 투입되어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 지역별 부서에도 젠더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함.
- 올해 SIDA에서 다룰 중점 과제로 젠더와 부정부패(corruption)가 선정되었음. 중점 과제 이행 이외에도 젠더팀에서는 LGBTQIA+에 대한 논의를 기관 내에서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성평등 외에도 1)기후; 2)분쟁상황; 3)빈곤; 4)인권 등 SIDA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음. 위 다섯 개의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사전에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파트너와 '대화(dialogue)'를 통해 분야별 성과를 기록해야 함.
- SIDA는 성평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타 기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OECD DAC, EU, UN Wome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이 주를 이룸.
-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스웨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다른 국가에 비해 성평등 의제에 있어 스웨덴은 적극적이고, 앞서있다고 할 수 있음. 스웨덴은 성평등 달성을 위해 이전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특히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발표 이후 젠더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도 확고해짐. 성평등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다수의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임.
- 백래시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성재생 산건강권에 대한 논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됨. 지역적으로는 미국, 동유럽, 아프리카에서 백래쉬가 심하게 나타남. 그 결과, 사업파트너 선정에 있어 SIDA와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

음.

- 성평등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정의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 스웨덴 시민사회단체 MÄN 기관 방문

□ 일시: 2022.5.23(월), 15:00~17: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스웨덴 시민사회단체 MÄN 참가자: Vidar Vetterfalk 해외프로젝트 담당자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스웨덴 비영리단체 MÄN 소개 및 활동 설명 (Vidar Vetterfalk 해외프로젝트 담당자)
  - 1993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전쟁 중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점에 설립된 페미니스트 시민사회단체임. 성평등 촉진, 폭력 예방, 전통적 남성성을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약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의 회원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은 ‘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고 활동 중임.
  - MÄN은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men’s violence against women)에 반대하는 남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옴. 남성의 돌봄 관련 논의로 시작해 현재는 남성성을 재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MÄN은 현재 폭력 예방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일반 대중에게는 MÄN이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보다는 젠더기반폭력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됨. 젠더기반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단어에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음. 그로 인해 사회적인 초점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더 가게 됨. 그래서 단어 자체에 가해자를 부각시켜 폭력 피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취지임. 동시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
  - MÄN의 성평등 촉진 활동에는 학교가 아주 중요한 허브가 되고 있음.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 학부모,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이 시작되도록 지원함. 전통적 남성성과 젠더 규범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평등 인식 제고 활동을 함. 현재 3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음. 일시적인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및 접근을 통해 MÄN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MÄN의 예산은 정부지원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
  -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백래시도 강해짐.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논의가 필요함.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구조적인 차별과 백래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면 더욱 쉽게 페미니즘에 접근할 수 있음. 물론 현

재 청년 남성들이 경험한 페미니즘은 극단적인 형태가 많았다는 점도 이해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청년 남성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

- MÄN의 주요 활동 중 ‘적극적인 듣기(active listening)’<sup>1)</sup>가 있음. 남성성(masculinity)과 ‘듣기(listening)’는 거리가 있는 개념임.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반대로, MÄN은 논의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연습을 강조함. 적극적인 듣기를 통해 젠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임. 이 활동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자가 스스로 이 활동의 목적을 정의해나가는 것을 추구함.

### 3. 스웨덴 성평등청과의 업무 협력 회의

□ 일시: 2022.5.24(화), 14:00~15: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스웨덴 성평등청 참가자: Anna Collins-falk 선임정책관, Christine Gave 국제협력담당자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스웨덴 성평등청 소개 및 활동 설명 (Vidar Vetterfalk 해외프로젝트 담당자)
  - 성평등청은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시행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설립됨. 여러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며,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아님.
  - 스웨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했음. 조사 결과, 너무나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다루어 핵심의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성평등에 관여하는 부처/기관 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국가 젠더 전략이 수립되었고, 그 결과 스웨덴 성평등청이 설립되었음.
  - 성평등청은 스웨덴 고용부 산하기관으로 직접적인 연구 수행보다는 외부 위탁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시민사회에 성평등 관련 정부 지원금을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함.

1) ‘적극적인 듣기(active listening)’ 활동: 한 공간에서 5-6명의 남성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3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함. 이 3분 동안에는 불개입(non-interruption)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체 질문, 코멘트를 허용하지 않음. 3-4회의 미팅 후,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소그룹별로 진행자 한 명의 주도 아래 젠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 예를 들어 포르노가 본인의 이성교제, 성적체성에 미친 영향이나, 전통적 남성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논의도 진행함.

- 해외 협력의 경우, EU 회원국으로부터 성평등 정책 및 법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고, 해당 부문에서 협력 활동이 활발함. 또한, 북유럽 협력(Nordic Cooperation)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성평등청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함.
  -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개괄적인 분석 및 주요 의제 팔로우업: 성평등청은 스웨덴의 6개 성평등 하위 목표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함.
  - 2)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이행 지원
  - 3) 성평등 정책 분야에서 특정 정책과제의 조정 및 이행
- 스웨덴의 6개 성평등 정책 하위 목표
  - 1)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분배
  - 2) 경제 평등
  - 3) 교육 평등
  - 4)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의 평등한 분배
  - 5) 보건 평등
  - 6)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근절

#### 4. 스웨덴 고용·성평등부 기관 방문

□ 일시: 2022.5.25(수), 10:00~11: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스웨덴 고용·성평등부 참가자: Elisabeth White 성평등 부국장, Ewa Wiberg 여성경제 전문가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스웨덴 성평등 정책 및 고용·성평등부 소개 (Elisabeth White 성평등 부국장)
  -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는 스웨덴에서 성평등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조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즉, 성평등 관점을 국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 성평등은 인권, 민주주의, 정의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는 성주류화와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성인지예산제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예산이 성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에 득이 됨. 성평등한 예산 분배가 국가 GDP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경제 성평등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 예를 들어, 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변

화(1971년 분리소득과세; 1974년 육아휴가수당; 1974년 공공돌봄 지원)는 아동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이후에도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에는 경제 성평등과 관련하여 생애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정부 특별과제로 선정하고 동향을 분석하고 있음. 이외에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성별분리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현재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경제 성평등에 있음. 두 영역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자 함.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독립이 신체 및 정신적 독립을 가능하게 함.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에서는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남성들과 협력을 중요시함.
- 고용부의 개별적인 활동 외에도, 부처 산하 기관들(예: 고용부 산하 스웨덴 성평등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각 산하 기관은 소속 부처에 모든 활동을 보고하며, 고용부가 해당 내용을 수집하여 의회에 보고함. 고용부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을 때 모든 활동에는 성별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별분리통계, 성별 패턴 분석 등도 필수임.

## 5. 스웨덴 외교부 기관 방문

□ 일시: 2022.5.25(수), 15:00~16: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이택면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스웨덴 외교부 참가자: Ulrika Grandin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부국장 외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및 스웨덴 외교부 소개 (Ulrika Grandin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부국장)
  -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크게 3개의 R로 요약될 수 있음: 1) 권리(Rights); 2) 대표성(Representation); 3) 자원(Resources).
  - 구체적으로, 1) 첫 번째, 권리 기반 접근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성·재생산 건강권, 대표성 등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임; 2) 두 번째 대표성은 여성의 정치참여,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여성 리더십 등을 지원함; 3) 마지막 자원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의 확보를 의미하며, 모든 정부 예산 및 개발협력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자원이 할당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페미니스트 정책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평등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며 그 필요성이 대두됨. 스웨덴의 경우 1960-1970년대에 관련 논의가 시작됨. 정책적으로 페미니스트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 매우 변혁적인 시도였지만,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되면서 큰 논란은 없었음.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 외교부 장관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강조하며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도약하게 됨.

-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이 명확하다는 데 있음. 전체적인 외교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고, 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주요 콘텐츠가 추가되었음. 현재로서는 양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임.

### 3

## 2022 KWDI - 스웨덴 ISDP 국제포럼

□ 일시: 2022.5.24(화), 9:00~13:30

□ 세부일정

일시	구분
5.23(월)	참가자 도착 및 환영만찬
5.24(화)	09:00-09:15 환영사 및 기조연설 - Niklas Swanstrom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장 - Taekmyun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09:15-10:15 세션1: 개발원조를 통한 성평등 증진: 유럽 및 동북아시아의 젠더 ODA 사회: Jiso Yoon 본원 국제협력센터장 - 스웨덴 사례, 스웨덴 개발협력국(Lotta Sylwander) - 한국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Jiso Yoon) - 독일 사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Oyun Sanaa) - 일본 사례, 일본 국제협력기구(Tomomi Uchikawa) - 질의응답
	10:15-10:45 세션1 종합토론
	10:45-11:00 휴식
	11:00-12:00 세션2: 젠더 ODA 시행: NGO와 시민사회 사회: Margareta Wahlstrom 前 스웨덴적십자사 회장 - 스웨덴 Forum CIV(Phu Doma Lama) - 스웨덴 플랜인터네셔널 (Anna Crumley-Effinger) -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Katia Urteaga Villanueva) - 영국 Oxfam(Mona Mehta)
	12:00-12:30 세션2 종합토론
	12:30- 폐회 후 오찬

### 기조연설

## 2022 KWDI - 스웨덴 ISDP 국제포럼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의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후퇴되었으며, 특히 젠더기반폭력과 여성의 경제적 참여분야에서의 성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설명함. 젠더기반폭력 분야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이 심화되었고, 특히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강조함.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휴교 등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여성이 집중된 돌봄 서비스, 대면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을 설

명함. 이에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들이 국제적 차원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통해 성평등 개발원조의 향후 전략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연설을 마무리함.

## 세션 1

### 개발원조를 통한 성평등 증진: 유럽 및 동북아시아의 젠더 ODA

- 첫 번째 세션인 ‘개발원조를 통한 성평등 증진: 유럽 및 동북아시아의 젠더 ODA’에 대한 의제는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이 사회를 맡음. 본 세션에서는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성평등 ODA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팬데믹 이후에 성평등 ODA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윤지소 박사는 한국의 성평등 ODA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함. 윤지소 박사는 현재 한국의 성평등 ODA 비율은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전체 ODA 중 18% 정도이고, 분야로는 성재생산건강과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고 설명함. 한국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함. OECD DAC 가입 이래 한국의 성평등 ODA는 양적/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음.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성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성평등 대응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윤지소 박사는 글로벌 성평등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침.
- 두 번째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Lotta Sylwander 젠더정책 전문관이 SIDA의 주요 성평등 활동을 주제로 발제함. Lotta Sylwander 전문관은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시작과 함께 SIDA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성평등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명함. 이후에 SIDA는 젠더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성평등에 대한 SIDA의 입장을 공고히 함. SIDA의 주요 목표는 빈곤퇴치이며 성평등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핵심적임. 이어 성평등 부문에서 SIDA는 다음 세 가지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함. 1) 주류화(mainstream); 2) 통합(integrate); 3) 대화(dialogue). 이어 Lotta Sylwander 전문관은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 달성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성평등 ODA를 시행할 때 현지의 규범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SIDA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로 전세계 빈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관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침.
- 이어 세 번째로는 Tomomi Uchikawa 일본 국제개발협력기구(JICA) 젠더전문관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JICA의 접근'에 대해 발표함. Tomomi Uchikawa 전문관은 본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음. 현재 JICA는 전 세계 96개국에 해외지부를 설립하고, 총150여 개국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JICA의 성평등 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주요 분야가 있음: 1) 여성 경제역량강화; 2) 여성 인권 및 안보; 3) 여성 교육 및 평생건강; 4) 성인지 거버넌스; 5) 성인지 인프라구축. 이어 Tomomi Uchikawa 전문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에서도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1.5배 증가했고,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함. 이어서 팬데믹 이후 JICA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성인지적 접근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스마트 비즈니스, 젠더기반폭력 대응과 관련된 JICA의 여러 활동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침.

- 세션1의 마지막 발표자는 독일 국제협력기구(GIZ) 몽골지부 Oyunsanaa Davaadorj 젠더전문관이었음. Oyunsanaa Davaadorj 젠더전문관은 본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음. 성평등은 GIZ의 모든 활동의 기본조건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임을 강조하였음. 이어서 성평등 분야에서 GIZ의 6개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음: 1) 여성평화안보; 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3) 거버넌스 및 정치참여; 4) 농촌개발; 5) 기후; 6) 보건; 7) 교육. 이어서 GIZ의 코로나 이후 대응 활동 및 몽골의 직업훈련 사업 사례를 소개하였음.
- 네 개의 발표에 이어서 유럽 및 동북아시아의 성평등 국제개발협력력을 주제로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됨.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략과 사업의 예시, 향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음.

## 세션 2

### 젠더 ODA 시행: NGO와 시민사회

- 두 번째 세션은 Margareta Wahlstrom 전 스웨덴적십자사 회장이 사회를 맡고, ‘젠더 ODA 시행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룸. 이 세션은 NGO와 시민사회 단체가 성평등 ODA 사업 수행 경험과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됨.
-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는 옥스팜(Oxfam)의 Mona Mehta 성평등 지식네트워크 매니저였음. Mona Mehta 성평등 지식네트워크 매니저는 영국 옥스팜의 젠더기반폭력 및 여성 경제역량강화 사업 사례를 공유하였음. 옥스팜은 현재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사노동의 분배와 직장내 젠더기반폭력 철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We Care’라는 사업을 통해 무보수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이어서 Mona Mehta 성평등 지식네트워크 매니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업 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 저하, 여성들의 무보수 가사 및 돌봄노동 증가, 젠더기반폭력의 증가 등을 꼽았음. 이외에도 기관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추가함. 이어 Mona Mehta 성평등 지식네트워크 매니저는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대응 방식을 반드시 변경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사업으로 여성의 권리 증진 사업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 이어서 **스웨덴 플랜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의 Anna Crumley-Effinger 젠더 및 분쟁 자문관**의 발표가 이어짐. 플랜인터내셔널은 아동인권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아의 인권 증진이 필수요소라고 설명함. 이어 플랜인터내셔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개발도상국 여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설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아의 교육 접근성을 감소시켰으며 조혼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또한 플랜인터내셔널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봉쇄 조치가 도입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함. 이어서 플랜인터내셔널은 남성과 남아와 함께하는 젠더 규범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며, 여아 인권 증진을 위해 남성과 남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현재 플랜인터내셔널은 팬데믹 이후에 변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음.

□ 세 번째로는 **노르웨이난민위원회 Katia Urteaga Villanueva 젠더기반폭력 전문관**의 발표가 이어졌음. 노르웨이난민위원회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분쟁 및 재난을 겪은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지난 30여년 동안 분쟁 및 재난 상황 대응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역량 강화, 지속성 등에 추가적인 초점을 두고 있음. 노르웨이난민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전문가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임. 노르웨이난민위원회는 2021년 기준 76개국과 협력하였으며, 36명의 젠더기반폭력 전문가, 16명의 젠더전문가 등이 활동하고 있음. 지난 활동을 통한 교훈으로는 단순 개입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할 것,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사을 실시할 것,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분야별 교차성을 고려할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 이어서 **스웨덴의 비정부단체인 ForumCiv Phu Doma Lama 프로그램 담당관**의 세션 마지막 발표가 진행됨. ForumCiv는 스웨덴 비정부단체로 70여개국에서 활동중이며 170개의 기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ForumCiv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가장 중점적인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중점 활동 분야로는 애드보커시, 역량강화, 프로젝트 펀딩 등이 있음.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적 차원의 대화 플랫폼 형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젠더 분석 및 젠더 영향 보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ForumCiv는 성주류화(mainstreaming) 단어보다는 젠더 가시화(gender visi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어 FournCiv의 현지사업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는 유연한 예산 사용, 인권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침.

- 이어서, 발표에서 언급된 NGO와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이상수 코리아센터장의 폐회사로 본 포럼을 마무리함.

## 5

## 요약 및 시사점

### □ 요약 및 시사점

#### ○ 국제포럼 개최

- 동 포럼은 ‘국제개발협력과 젠더’를 주제로 동북아시아와 북유럽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됨. 특히, 이번 포럼은 여러 글로벌 여성의제 중에서도 젠더기반폭력 및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여기관과 NGO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나아가, 포럼의 발표자로 일본, 스웨덴, 몽골, 영국,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유럽-아시아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 스웨덴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원은 2018년 남북여성전문가 공동연구를 계기로 ISDP와 협력을 시작하였고, 이후 MOU 체결을 통해 공식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후 매년 공동 학술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며 협력을 공고히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출장을 통해 스웨덴 성평등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 본원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함. 구체적으로,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핵심에 있는 고용·성평등부 및 성평등청과 같은 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스웨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더불어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음. 또한, 외교부 및 개발협력기구(SIDA)와 같은 기관을 방문하여 스웨덴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평등 가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음.